

\*\*\*\*\*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사람사랑” 2호에서 6호까지 사랑방의 초기 문제의식을 담았던 글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그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저희의 초기 문제의식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 글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지금의 사랑방의 사업과 역할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②

### \* 한국인권운동의 변화의 조건

오늘날 한국의 인권운동을 특징짓는 것은 ‘유신·5공’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반독재투쟁의 경험이다. 물론 이와같은 독재의 상황은 지금도 본질적으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 인권운동의 이러한 특징은 지금도 간직해야 할 미덕이다.

유신·5공시대의 인권운동은 인권운동으로서 독립된 독자의 사회운동 장르였다기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권운동’,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리는 운동이었으며, 그것은 여타의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과 서로 얽히며 경계가 다소 애매한 것이었다. 거칠고 서툴렀지만 간절함과 뜻뜻함을 한몸에 지니고 있던 이 ‘원초적 종합운동’에는 ‘6월항쟁’을 전후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6월항쟁’은 두 가지 점에서 사회운동의 방식에 변화를 재촉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노골적으로 폭력적이며 강압적이었던 통치방식이 합법·개량을 위장한 음성적 폭력방식으로 서서히 변함에 따라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의식 속에서 간절함의 정도가 떨어져, 사회운동은 그와같은 상황변화 속에서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동역량의 비약적 발전에 따르는 필연적 과정으로서 ‘원초적 종합운동’이 각 부문운동으로 분화 내지는 전문화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노동·농민·여성·빈민·환경 등등의 분야

가 각자의 운동영역을 확립하면서 ‘원초적 종합운동’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 인권운동은 자신의 입지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 ‘원초적 종합운동’의 뜻뜻함을 잃어버림 없이 스스로의 운동방식을 성숙시키고 전체 사회운동속에서 인권운동의 위상을 확립시킨다는 긴급한 요청을 받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다. 우리를 당혹케 하는 대상의 광대함, 막연함 때문에 인권운동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다시 그 부문내부에서 다시 부문화, 전문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6월항쟁’을 거쳐,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이 부문내 부문화·전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각 인권단체는 아직도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운 ‘구멍가게’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전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원력이 없는 이들 여러 단체를 수평적으로 연대케 해 줄 그 어떠한 장치도 우리의 인권운동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 인식은 우리의 ‘못난’ 인권운동이 ‘잘난’ 인권운동으로 변신하기 위한 길을 스스로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초적 종합운동’의 ‘힘모으기’를 잃어버린 대가로 우리가 전문성을 붙잡지 못한다면 못한 인권운동의 앞날은 더욱 암담할 뿐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기어이 돌파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해서 ③ ‘자료를 축적하는 운동’ ④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가?’

⑤, ⑥ ‘변화를 예감하는 하나의 구상’이 이어집니다.



\*\*\*\*\*

# 사업보고

(5월 둘째주~6월 첫째주)

\*\*\*\*\*

## □ 운영위원회 □

정기 운영위원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차 운영위원회(5월 25일)>

\* <인권하루소식>창간 2주년 기념행사 기획초안 검토-일회성 행사보다는 '인권'의 성격을 특화시킬 수 있는 행사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인권하루소식>합본호 정기구입 요청건을 대한변협등을 비롯한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추진.

\* 사랑방원 해외연수계획 검토-서대표 귀국후 추진하도록 함.

\* 인권자료실에 대한 장기적 투자계획 검토-인터넷활용 등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자원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함. 우선은 D.B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료실 전용컴퓨터 구입지원을 결정.

\* 운위·사무국간의 논의 활성화와 명확한 결정구조를 모색.

# 제11차 운영위원회는 6월 14일에 열립니다.

#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과 백승현 변호사(운영위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보고서의 한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영역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완성하여 제네바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 민간보고서의 주요집필진이 7회에 걸쳐 중앙일보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를 담당하였습니다. 기사내용이 필요하신 자문위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복사본을 보내드립니다.

\* 6월 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Ian Neary교수가 아동권리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아동민간보고서 사업담당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 □ 인권하루소식 합본 4호 발간 □

주요기사색인과 자료이용안내, 국가보안법에 관한 최근 판례와 관련자료를 첨부한 <인권하루소식>합본4호가 발간됩니다. 운영·자문위원 여러분께서는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인권하루소식 지방통신원 활동시작 □

<인권하루소식>이 수도권에만 집중된 취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방통신원제도

를 통해 확보된 전국 13개 지역의 통신원들이 각 지방의 주요사건기사를 송고해 오고 있습니다.

## □ 인권하루소식창간 2주년 기념행사 준비 □

을 9월 7일은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기념일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하루소식>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간 사랑방이 해온 사업을 한자리에 모아보는 기회로 2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 \* 독자 및 자문위원 초청행사
- \* 인권단체편람 증보판 발간
- \* 인권의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인권교육자료 전시
- \* <인권하루소식> 영문판 창간호 발행 등입니다.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 국제조약 민간보고서 작성사업 □

지난 5월19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했던 10개 단체들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정부에 그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사랑방은 그간의 경과보고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사회권과 관련된 국제인권체도를 교육·홍보하기 위한 '사회권 관련단체간의 간담회'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인권체도를 국내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 권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 인권강좌 □

16, 17차 '형사소송법'(차병직 변호사), 18차 '각국 사법제도 비교와 법조개혁'(박홍규 교수), 19차 '통일운동의 과제와 미래'(홍진표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총무부장)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인권강좌는 20차 '행형법 및 행형관련조약'(박찬운 변호사), 21차 '노동법'(김선수 변호사) 강의로 마감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강좌내용을 기초로 교안집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1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공개강좌에 참여해주신 강사분들께서는 이 교안집과 기념품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인권교육실은 9월 개강 예정으로 2기 인권강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 서울법대학생회 주최 진보법률학교 강연 □

서울법대학생회 주최로 열린 진보법률학교에서 "한국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인권교육실의 류은숙, 김수경씨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6월 1일 있던 이 강연은 실천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택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 **사회단체연수프로그램** □

서울법대학생회의 요청으로 6월 28-30일, 3일간에 걸쳐 사회단체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3회의 인권교육과 토론, 업무보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학과대학생실습교육** □

여름방학기간동안 사회복지학과 전공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이론과 실제부분으로 나뉘어 이론에서는 인권의 역사·철학과 주요인권조약을 살펴보고, 실제에서는 인권의식 설문조사와 자료실 worksheet작성 등 업무보조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학과 외에도 사회단체연수를 원하는 관련학과 학생들의 신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인권교육워크샵** □

인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이 6월 10-11일 이틀간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사랑방 인권교육실은 제1주제인 “현시기 한국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발제하였고, 그간 사랑방이 해온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2차 워크샵은 10월에 열릴 예정이며, 사랑방은 현 교과서 내용 분석과 제1주제의 내용을 심화시킨 발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 **인권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잡어** □

올 12월 개최예정인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인권협 실행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주제로 국내외의 인권운동가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국보법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보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 실행위원회에서 사랑방은 조직 및 대외교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자문위원 김거성 목사,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인권자료센터’ 교육집기보고회 가져** □

네팔 카트만두 소재의 HURIDOC에서 열린 인권자료 데이터 분석 교육프로그램에 인권자료실이 초청받음에 따라 자문위원 김거성목사가 참가하였습니다. 5월 23일에 열린 보고회를 통해 김거성 목사는 네 팔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소감과 함께 여러 문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인권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취합하고 분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후속사업으로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교육을 HURIDOC에 요청하거나 ‘국내 인권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네트워크 훈련프로그램실시와 EVSYS한글화 작업’, 인권 D.B서비스·인터넷활용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고정출연** □

5월11일부터 박래군 인권하루소식 편집장이 기독교방송 시사자키에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출연하여 주간인권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바랍니다.

□ **의사·표현의 자유관련 유엔특별보고관 방한 관련사업** □

6월 말 4박 5일의 일정으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관련 유엔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에 사랑방과 민가협 등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방문에 관련하여 인권협의 의견을 담은 편지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건을 8개 소주제별로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계기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내여론 확산을 위한 사업을 기획중에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공대위 수련회 영장** □

6월 23-25일 외국인노동자 공대위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수련회를 갖습니다. 소속단체로서 사랑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촉구’ 등을 준비·제안할 계획입니다.

□ **서준식 대표 두강** □

미국유학중인 서준식 사랑방 대표는 미국무성의 “민간단체 초청방문 프로그램”에 초청된 민간단체 중 인권분야의 대표자로 선정되어 지난 5월 21일 부터 4주간 미국순회일정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립대학의 사회사업대학원 강의시간에 Guest Speaker로 초청되어 연설하였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

5월회비를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말에 지로가 개설된 관계로 지로배달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그간 직접 은행입금하는 회비납부 방식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로는 매달 20일 경에 배달되오니 25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자료소식

\*\*\*\*\*

지난번에 이어 <아동인권>관련 영문자료목록을 실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인권자료실로 연락하시어 대출 또는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는 행형·구금에 관한 자료목록을 실습니다.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7p/En  
유엔 어린이권리조약 전문과 요약

● The Rights of Children edited by Bob Franklin/Basil Blackwell/51p/En  
아동의 정치적 권리, 학교에서의 권리, 보호의 권리, 소년사법과 아동, 청소년의 권리, 노동에서의 권리, 성적 권리, 여아의 권리, 흑인아동의 권리, 스코트랜드의 관점에서 본 아동의 권리가 주요내용

● The Rights of Children leg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James S. Henning, ph. D./CHARLES C THOMAS PUBLISHER  
법적분쟁상의 아동, 국가보호강화에 있어서의 도덕적 딜레마와 문제가 되는 결정, 아동학대, 이혼가정의 아동, 상호적인 문화적 관점, 조사주제로서의 아동, 법률가와 아동클라이언트간의 관계를 다룸.

● 유엔 어린이권리조약에 관한 정부보고서  
1. Country Report on the legal,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improving the rights of the child, August 1994/The republic of Korea/112p/En-한국정부 최초보고서  
2. UK Agenda for children: A summary/Documenting key breache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p/En-영국정부가 제출한 아동권리에 관한 보고서 요약본, 1994년 10월 17일  
3. HRI/CORE/1/Add. 37, 2 February 1994/6p/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필리핀 정부보고서의 핵심내용, 1993년 9월 21일

● 유엔 어린이권리조약에 관한 민간보고서  
1..A guide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porting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4/16p/En- 어린이 인권조약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 NGO Group에서 낸 민간보고서의 작성지침  
2. REDD BARNA(Norwegian Save the Children)/Comments on the Norwegian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5p/En-노르웨이 민간보고서  
3. Philippine NGO Coalition/18p/En, 1994년 3월 24일-필리핀 민간보고서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사문건  
1. UN CRC document- CRC/C.5/WP.2, 22 November 1993/10p/En-콜롬비아 최초보고서와 관련된 이슈목록  
2. CRC/C.7/WP.4, 5 May 1994/4p/En-덴마크최초보고서와 관련된 이슈목록  
3. CRC/C.8/WP.4, 26 October 1994/5p/En-폴란드 최초보고서와 관련된 이슈목록  
4. CRC/C.8/WP.1, 20 October 1994/6p/En-영국과 북아일랜드 최초보고서와 관련된 이슈목록  
5. CRC/C.7/WP.3, 6 May 1994/5p/En-필리핀 최초보고서에 관련된 이슈목록  
6. CRC/C/SR.186, 17 January 1995/19p/En - 필리핀 정부보고서 심사  
7. CRC/C/3/Add. 23, 3 November 1993/57p/En 1992년 정부최초보고서에 대한 추가정보:필리핀

● 유네스코 인권교육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아시아 회의관련자료(95년 3월 29-31일, 서울)  
1. A Report on Peace Education Activities of the NGOs in Korea by Dr. Ko Byung-hun Secretary ACRP Peace Education Center in Seoul./14p/En-한국민간단체의 평화교육활동에 관한 보고서  
2. Tasks and Roles of the Regional Network of Experts i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by Dr. Valai na Pombejr Specialist in International Education Principal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O-평화,인권,민주주의교육을 위한 지역전문가네트워크의 임무와 역할  
3.The Asia-Pacific Network of Regional Experts i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by Dr. Lourdes R, Quisumbing-Philippines-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에 관한 발제문을 비롯하여 각국 전문가가 제출한 6개 문건